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수십억의 인간들이 지구 곳곳에 흩어져 사는 이들을 우리는 다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뿐 아니라 환경과 피조물들을 보시고 아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한 모든 부분도, 실제적인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사건, 피조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다.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아신다.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그는 잊어버리시거나 틀리거나 변하지도 않으시고, 못 보시고 넘어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배우거나,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발견하시거나 놀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므로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한 말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 측량할 수 없다고 찬양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한다.

헬라어로 하나님을 세오스(Theos)라 한다. 이 말은 Theisthai(세이스타이)에서 온 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all-seeing One)이라는 뜻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본질상 전지(全知)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보실 수 없다면 시각장애를 갖고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도 맹인 우상은 만들지 않는다. 허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보시고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람의 눈도 속이기 쉽지 않은데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완전히 겉과 속을, 행동과 마음을 계속 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내가 나를 본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기술과 재능을 보고 해석하려는 것이 인간이지, 하나님처럼 내 마음이 조성되기 전, 그 마음의 방향까지 정확하게 읽는 분은 하나님 외엔 아무도 없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에 관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시고 알고 계신다. 약점이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컴퓨터와 같은 기계와는 다르다. 누가 열쇠 구멍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불편해하고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알려저서는 안 될 비밀도, 죄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니체는 살신(殺神)을 하겠다고 했으나 제가 미처 죽었다. 1984년 G.Orwell의 미래 세계를 내다본 Big Brother의 진지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할 것 같으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는다.

사람의 오해와 모함으로 울분과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피보셨으므로 나를 익히 아셨나이다.” 한 시인처럼 어차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피하거나 두려워 말고, 그 앞에 감추인 죄를 회개하고, 그만 의지하면 감사와 찬양이 터질 것이고, 위로와 기쁨이 넘칠 것이다.

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제 1602호] 2018년 7월 14일 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당에서 새벽 5시에 모이는 2021 홍해작전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홍해작전은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구하며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모이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홍해작전 기간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당에 방역대책이 안전하게 세워져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 1부 예배를 본당에서, 수요 2부 예배는 웨민홀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에는 유 · 초등부, 중 · 고등부, 청년부가 대면예배로 드리며, 영 · 유아부, 유치부, 사랑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620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합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벨기에), 조병연·김희경, 이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진경·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토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브도, 보디소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건너편으로 갑시다 ”

■ **눅 8:22-25**
고대 사회는 먼 거리를 여행하는 최고의 수단이 선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호수를 배편으로 건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선박 여행은 자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문도 그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 하십니다. 모처럼 한가한 시간이어서 주님은 배에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되어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와 넘치는 물결 때문에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급기야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은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목적을 재검점하라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호수 건너편은 어디이며 가자고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은 거라사인의 땅이며, 가시려는 목적은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시려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는 데카볼리에 속한 규모가 꽤 큰 도시입니다. 거라사에 가신 예수님은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셨고, 바로 건너편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가신 목적은 오직 이 한 사람을 만나시려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많은 사람들 중에 최악의 상태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시고 구원하시려고 풍랑 심한 바다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막 7:24 이하에도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를 만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갈릴리에서 국도를 횡단하여 서쪽 끝 갈릴리를 출발하여 동쪽 끝 지중해 해변도시 시돈지방까지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도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 풍파 많은 인생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에서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인생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려는 극진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발견은 하늘도 돕고 땅도 도와야 마땅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 찼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어떤 노력과 수고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삶의 고통은 많은 줄고 들이 깊이 생각하는 인생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고통의 문제가 많이 언급되는데, ①죄 때문에 고통이 왔다고 합니다. ②우리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과정에서 고통을 온다고 합니다.(욘 23:10)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단련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약 1:2-3) ③누군가 주님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들이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짐으로 삼아 힘들기도 합니다. ④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한 세상에 산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고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여러 일들로 세상에 고통이 일반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가고 순교한 목적을 지니고 살아도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풍파도 만나고, 시련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풍파 많은 세월을 자발 때도 전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듯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3. 궁극의 질문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일과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은 명하매 순종하는가?’ 이런 궁궁증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이 질문에는 그들의 거룩한 호기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중간사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명사를 지니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수많은 시도된 독립전쟁이 늘 실패로 끝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가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들로서는 가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연 세계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누구시냐?’는 질문에는 ‘혹시 이 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시냐?’는 강력한 희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도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의 알자 힘써 여호와의 알자라고 했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의문이 풀리고 목적이 발견되고 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며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 할지도 비로소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서문석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마 11:2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42(시 98)...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9(3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눅 8:22-2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건너편으로 갑시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30(456)...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약 4:8 인 도 자
 찬 송 419(478) 다 함 께
 기 도 김승록 집사
 성 경 수 4:1-14 인 도 자
 세례식 손달익 목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 설 교 자
 * 찬 송 292(41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I부: 권성자 권사 II부: 강은경 권사
 성 경 수 5: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 설 교 자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대면예배 및 예배실황 중계)

오전 5시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6.21(월)-25(금)..... 손달익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6.26(토)..... 전재홍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눅 8:22)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부	호산나	구민영	안효주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사-1시3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금일 세례식 실시 - 금년도 두번째 세례식인 6월 세례식이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 결 혼</p> <p>1. 정기성 전도사(중등부 교육전도사) 최하영 양 /</p> <p>6월26일(토) 오후 12시 구리 자음웨딩홀 9층 플로리아홀(031-552-9000) / 중앙선 구리역 3번 출구</p>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68명	552명	2,120명	475명	3,998명

🌳 위선의 위기

양의 가족을 쓴 이리처럼 겉과 속이 다르거나 회칠한 무덤처럼 외부를 미려하게 장식하여 눈가림이나 하는 속임수들이 세상에는 허다하다. 좋은 이름을 갖고 이름값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높고 화려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리값도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높은 이름과 자리에서 물러서든지 아니면 위선과 거짓의 탈을 속히 벗어 던지고 진리 앞에 솔직하고 사실 앞에 겸손히 자기 반성과 철저한 회개를 통해 책임을 다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위선은 시간이 지나면 폭로되게 되어 있고 거짓은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세상의 도리라면 이 시대를 미혹하고 이 백성을 속이고 있는 모든 악령들은 즉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 거짓된 자는 망하고 진리에 대해 진실한 사람은 득세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